

## 對人關係의 均衡에 對한 새로운 理論的 接近

洪 大 植  
全北大學校 心理學科

본 논문에서는 Heider 와 Newcomb 등의 均衡理論들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안적 이론들을 제시하고, 대인 관계상황에 대한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종합된 이론을 제시하려 하였다. 먼저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을 구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인지적 반응에서는 다소 균형이론이 지지되었으나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서는 지지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로 호(正)와 오(負)의 무게와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개의 경우에 正的 관계보다 負的 관계가 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P/O, P/X 및 O/X에 대한 반응에서 균형의 효과가 다름이 지적되었고 지각자는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조망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균형 효과는 삼원적 사회관계에 대해서 일부의 영향력밖에 지내고 있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삼자관계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제안을 하였다.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는 나(P)와 타인(O)의二者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二者 사이의 관계는 直接的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二者 사이에는 거의 반드시 어떤 제삼의 대상의 매개가 있어야 된다. 또한 사회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계도 他人의 매개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아마 他人의 매개가 없는 대상은 성질상 사회적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Newcomb(1953, 1959)은二者 사이의 관계나 태도는 對象없는, 즉,

환경적인 진공 속에서 성립되는 일이 드물고, 사람의 대상에 대한 관계는 他人이 없는, 즉, 사회적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람의 他人과 對象에 대한 同時的인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나 (P), 타인 (O) 및 어떤 대상 (X)은 하나의 사회적 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體制에 관련된 이론들 가운데에서 Heider (1946, 1958)의 이론은 인지적 일관성 (cognitive consistency)에 터한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상황들, 예컨대, 태도변화, 대인지각, 대인매력, 자아개념 등을 취급하는 여러 연구 주제들에 직접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Insko, 1967).

특히, Heider의 이론은 여러 유사 이론들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50년대를 통해서 발전되어 온 Festinger(1957)의 인지적 부조화이론, Osgood과 Tannenbaum(1955)의 일치이론, Abelson과 Rosenberg(1958)의 심리-논리, Newcomb(1953, 1959)의 대칭으로 향한 긴장 및 Cartwright와 Harary(1956)의 구조적 균형이론 등은 Heider의 이론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이론은 모두 Heider의 인지적 균형의 원리를 자신들의 접근과 유사하거나 평행되는 것으로 인용하고 균형이론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 (Jordan, 1968).

이하의 논의에서는 우선적으로 Heider의 이론과 Newcomb(1968)의 수정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고, 이들 이론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4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이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대인관계의 均衡에 대한 理論的 背景

Heider(1958)는 과학적 심리학은, 특히, 대인관계의 분석면에서 상식적 심리학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대인관계의 현상들을 상식심리학에 근거해서 분석하였다. 그의 對人關係에 대한 균형원리는 한 사람(또는 지각자) P가 다른 사람 O와 다른 대상 X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느끼는 양식을 취급하는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Heider는 P, O, X의 세 요소의 각 쌍의 관계, 즉 P와 O의 관계 (P/O), P와 X의 관계 (P/X) 및 O와 X의 관계 (O/X)에는

각각 두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情操關係 (sentiment relation) 또는 好感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單位關係 (unit relation)이다. 情操關係와 單位關係는 또다시 두 하위유형, 즉, 정적 (positive) 관계와 부적 (negative) 관계가 있다. P, O, X의 세 요소간 관계에서 각쌍에 대해서 하나의 관계만 있다고 가정하면, 세 요소 사이의 관계의 형태는 8종류가 된다. 즉, P/O, P/X 및 O/X 관계에서 각각 正·負의 관계의 조합을 취한다면, +++ , +- -, + - +, ++ -, - + +, - - -, - - +, - + -의 형태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다시 분석해 보면, P/O 관계에서 태도가 일치되는 상황, P/O 관계에서 태도가 불일치되는 상황, P/O 관계에서 태도가 일치되는 상황 및 -P/O 관계에서 태도가 불일치되는 상황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8개 상황은 각각 (P)가 지각하는 두 사람과 한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심리적 상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Heider의 중심적인 理論的 概念인 均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균형된 상태의 개념은 지각된 단위들과 경험된 情操들이 긴장없이 共存하는 상태를 지칭한다”(Heider, 1958, p. 176). “三元關係 (triad)는 세개의 관계가 모두 正的이거나, 두관계가 負的이고 한 관계가 正的일 때 균형되어 있다. 두 관계가 正的이고 한 관계가 負的일 때는 불균형이 생긴다. 세개의 負的인 관계의 경우는 다소 애매하다”(Heider, 1958, pp. 202 - 203).

Heider의 기본가설은 세 요소간의 情操와 單位關係는 균형된 상태로 지향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균형상태가 불균형이나 부조화된 상태 보다 더 選好되며, 균형된 관계를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가 도입될 수 있으며, 관계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관계들이 변화되어서 균형된 형태로 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그런 변화가 가능치 못하다면 불균형의 상태는 긴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ewcomb 등 (Price, Harburg 및 Newcomb, 1966; Newcomb, 1968)은 Heider의 이론검증을 위한 몇개의 이전 연구들을 재분석하고, 正的인 P와 O의 관계 (+P/O)의 관계에서는 三元的 社會關係는 균형과 불균형의 區分이 뚜렷하지만, 負的인 P와 O(-P/O)의 관계에서는 균형과 불균형의 구분이 적고, 이들은 정적인 P와 O관계 상황에서의 균형과 불균형의 중간의 점수를 나타낸다고 주

장하고, -P/O 관계의 상황을 非均衡된 상황이라고 지칭하였다. 즉, Newcomb 등은 Heider의 균형과 불균형의 二分法 대신에, 균형, 비균형 및 불균형의 三分法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P/O관계의 상황에서 균형과 불균형의 구분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 -P/O관계에서는 싫어하고 있는 他人이 자신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가질 것인지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고, 싫어하고 있는자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있는자에 대해서 "보다 감정상의 양면성이 더 크고,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가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두 理論 외에도, Heider의 균형이론을 발전시키려고 한 이론이 몇 가지 있다. Cartwright와 Harary (1956)는 數學的 概念을 빌려서 균형이론을 더욱 공식화시켰고, 삼원적 관계보다 더 큰 관계의 構造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 균형을 각 관계의 부호의 積에 의해서 규정하였다. 각 관계의 강도를 고려한 이론도 제안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Wiest (1965)는 四面體 模型 (tetrahedron model)을 제안하였고, Feather (1964, 1967)도 의사소통의 효과의 상황에 대한 균형이론의 확장에서, 삼원적 관계의 상황에서 두 관계의 부호와 상대적 크기는 차이원리 (discrepancy principle)에 따라 예언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 a, 1971 b)는 Wiest와 Feather의 수학적 모형을 공식화 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이와같은 수학적인 공식화와 확장을 시도한 모형들 외에도, Abelson과 Rosenberg (Abelson과 Rosenberg, 1958; Rosenberg와 Abelson, 1960)도 관계의 종류를 더 세분하고, 그에 따른 심리-논리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Heider의 이론을 수정하고 확장하려는 이론적 모형들은 대부분이 제한된 의미를 갖고 있고, 실험적 연구도 극히 드문 실정에 있다. 더우기 균형이론에 수학적인 모델을 적용하려고 한 것은 삼원적 관계의 세부적 특징이 아직 규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급하고도 시기상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균형원리의 기초 이론인 Heider (1958)와 Newcomb (1966, 1968)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이론의 수정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새로운 理論的 提案

Heider(1958)의 균형이론과 Newcomb(1968)의 균형이론의 수장은 본래 대인관계의 지각과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이론과 합치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중요 연구결과들을 두 이론에 비추어 검토하고, 이론에 맞지 않는 점들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해결책으로서 몇가지 理論的 接近方法을 제시하고,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정리하여 보고저 한다.

### 1.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반응측정치들의 구분과 새로운 이론적 접근

Heider(1946,1958)의 이론 검증을 위한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종속변인을 달리 해서 이론의 적합성을 검토하려고 하였다. 홍대식(1980a)의 종전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에서 보면, 이론검증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은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 대한 유쾌도, 일관성, 기대도(expectedness), 안정도 평정들과, 상황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관계와 그 정도의 평정, 未完成 關係의 완성이나 예언, 상황에서의 관계의 종류에 대한 학습이나 기억 및 자연적 대인관계에서의 사회계측적 선택(sociometric choice)이나 평정의 8종류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연구결과들을 검토해 보면, 종속측정치에 따라 이론에 대한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유쾌도 판단에서는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을 일부에서는 지지하고 일부에서는 지지치 않는 결과를 얻었으며, 인지적 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의 일관성, 기대도 및 안정도 평정 연구들에서는 유쾌도 평정에서 보다 Heider의 이론을 보다 더 지지하는 방향으로 결과들이 나왔다. 상황속의 관계변화의도의 평정에서는 대체로 유쾌도 평정과 비슷한 결과들을 얻고 있었으나 관계의 학습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론에 대해 일정치 못한 결과를 얻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연적 대인관계의 패턴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한 관계가 正的일 때는 이론적 예언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고 있으나 負的일 때는 이론을 지지치 못했다.

여러 가지 종속변인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종속변인들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예 : Insko, 1967; Kiesler 등, 1969 ; Murstein, 1971; 홍대식, 1980 a ). 따라서 균형이론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불균형, 즉, 종속변인의 성질을 정확히 규정하고, 각 종속변인에 대한 엄밀한 이론화를 필요로 한다. 균형이론의 검증을 위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의 분류는 인간의 반응 특징에 대한 통상의 구분에 따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반응을 認知的,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으로 구분하여 왔다. (예 : Fishbein과 Ajzen, 1975 ; Insko 와 Schopler, 1967; Rosenberg 와 Hovland, 1960 등 ). 이러한 구분에 따라 균형이론의 검증을 위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을 검토해 보면, 未完成 關係의 완성이나 예언측정치는 분명히 認知的 反應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상황에 대한 유쾌도 평정은 感情的 反應에 속하고, 각 관계의 변화의도의 평정은 行動的 意圖나 反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타의 상황의 일관성, 기대도 및 안정도의 평정은 認知的 反應으로 구분하여 왔으나(예 : Gutman과 Knox, 1972 ), 그것이 순수한 認知的 反應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感情的 反應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소 不明한 것 같다. 또한 關係의 學習이나 自然的 對人關係에서의 사회계측적 선택이나 평정도 單一 次元이나 要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균형이론 검증을 위해서는 상기에서 지적한 세 가지 반응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고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세 가지 反應測定值別로 정리하면서 균형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그에 대한 대안적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認知的 反應 : 未完成關係의 예측

미완성관계의 예측에 대한 균형이론의 검증은 피험자에게 三元的 關係 중에서 두 관계를 제시해 주고, 나머지 한 관계를 추측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서

본 분석의 목적에 비추어 방법론상으로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연구에는 Fuller(1973), Wellens와 Thistlethwaite(1971 b) 및 洪大植(1980 a)의 연구가 있다.

Fuller(1973)는 P/O, P/X 및 O/X 관계를 한번에 두개씩 취하고, 관계의 순서를 고려치 않아서 두 관계에 대한 12개의 組合을 만들었다. 각 피험자에게 비어있는 제삼의 관계를 예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64명의 피험자에게서 나온 768개의 전체 반응중에서 26개의 반응만이 불균형된 패턴을 이르켰다. 그리고 이러한 완성반응(completion response)은 Newcomb(1968)의 이론과는 달리 +P/O 나 -P/O 관계의 상황일 때나 균형의 방향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Heider의 理論은 전반적으로 지지받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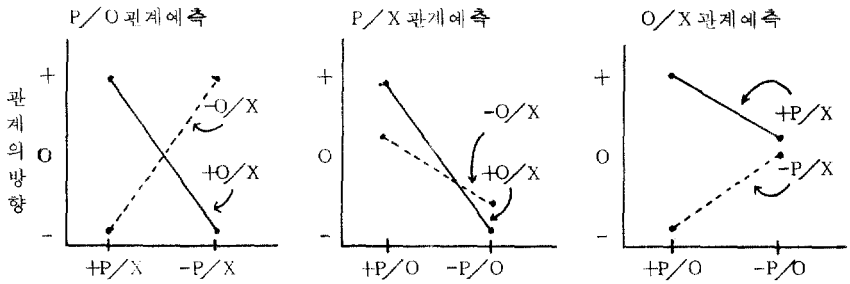
Wellens와 Thistlethwaite(1971 b)의 연구에서는 두 관계를 가상적으로 만들면서 나머지 관계를 추측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의한 균형효과를 얻어서 Heider의 이론을 지지하고 Newcomb의 수정이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균형원리는 -P/O 관계의 상황에서도 유보되지는 않으며, -P/O 상황이라도 무관심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Newcomb의 非均衡은 유쾌도 평정에 적용되고 빠진 관계의 완성에는 적합치 않다고 논의하였다.

洪大植(1980 a)의 연구에서는 P/O 관계와 P/X 관계의 강도를 변화시키면서 피험자들에게 P/O 관계, P/X 관계 및 O/X 관계에 대한 추측을 하게한 5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실험에서 유의한 均衡效果를 얻어서 Heider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모든 연구결과들을 함께 고려할 때, Heider의 균형원리는 인지적 반응, 특히, 관계의 예측반응에서는 지지받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중요한 但書 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균형의 효과를 P/O 관계, P/X 관계 및 O/X 관계의 각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실험에 따라 약간 차이있는 모양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도1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1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세 관계는 자기 다른 균형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P/O 관계의 예측점수는 완전히 균형이론에 부합되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Heider의 이론은 지지받았다. 그러나 O/X관계

예측점수의 패턴은 Newcomb의 이론과 아주 부합되고 있다. 즉,



〈도 1〉 정적관계와 부적관계의 상황에서 각 관계의 예측점수 (洪大植 1980a에서 수정 발췌함)

+P/O 관계의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균형과 불균형이 구분되는 방향으로 O/X 관계의 예측이 되었으나, -P/O 관계의 상황에서는 O/X 관계의 예측은 中間點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리고 P/X 관계의 예측점수는 +O/X 관계의 상황에서는 뚜렷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타난 반면에, -O/X 관계의 상황에서는 Heider의 균형이론에 부합되지 않고 Newcomb의 이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세 관계의 각각에 대한 均衡効果는 P/O 관계의 예측에서는 Heider의 균형이론을 지지하였고, O/X 관계의 예측에서는 Newcomb의 이론을 지지하였으며, P/X 관계의 예측에서는 두 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Newcomb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형태상으로는 그러하였지만, 심적 기제상으로는 다른 근거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 즉, O/X 관계 예측과 P/X 관계 예측에서 -P/O나 -O/X 관계의 상황에서 중간점수를 받은 것은 Newcomb의 주장대로 -P/O 상황에 대한 피험자의 무관심이나 감정상의 양면성에 기인되기 보다는 O/X 관계의 애매성에 기인되는 것 같다. 뒷節에서 각 관계의 성질차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자세하게 취급되겠지만, O/X 관계는 지각자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관계로서 지각자는 P/O나 P/X 관계보다 O/X 관계를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Newcomb의 이론은 근본에 있어서 빠진 관계의 예측에서는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균형의 원리는 관계의 예측에서는 지지받고 있으나, P/O, P/X 및 O/X 관계에 대해서 달리 작용된다는 이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나. 感情的 反應과 行動的 反應

앞에서는 對人關係의 均衡에 대한 이론화에서는 認知的,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을 구분하여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感情的 反應과 行動的 反應에 대한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本分析에서는 對人關係의 상황이 이 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節에서 두 반응변인에 대한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Heider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종속변인은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愉快度이다. 이 변인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균형된 상태가 조화로운 상태이고, 상황을 구성하는 실체들과 그것들에 대한 감정이 긴장(stress)없이 서로 드러 맞는 상태(Heider, 1958, p.180)라는 정의에 연유된 것 같다. 그리고 關係變化意圖의 변인은 Rodrigues(1967)에서 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행동적 변인을 취급하는 변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Newcomb(1968)이 자신의 이론을 제안하기 위해서 인용한 바 있는 연구들을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 그 뒤의 연구결과들을 분석하면서, Newcomb의 이론과 아울러 Heider의 이론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1) Newcomb(1968)이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재분석

Newcomb은 -P/O의 상황은 싫어하는 타인에 대한 양면적 감정, 상황에 대한 몰입의 부족 등으로 비균형된 상황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Jordan(1953)과 Rodrigues(1966, 1967)의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는 그러한 재분석의 결과 +P/O관계의 상황들은 균형과 불균형의 구분(또는 차이)이 뚜렷하지만, -P/O관계의 상황들은 균형과 불균형에 따른 차이가

적고 +P/O관계의 균형과 불균형된 상황의 중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Newcomb의 분석이 실제로 타당하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Newcomb이 인용하였던 연구의 결과들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같이 +P/O의 균형상황과 불균형상황은 Heider나 Newcomb의 이론대로 구분이 분명하게 지어졌다. 문제는 -P/O의 상황에 있다. -P/O 상황 중에서도 특히 -P/O관계의 태도 不一致 상황이 특히 두 이론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는 4 종류의 상황에 대한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평정치의 크기만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분석에 사용된 -P/O 상황에 대한 16개의 평정치에서 평정치의 크기의 면에서 Newcomb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결과는 6개나 되었고, 특히 -P/O의 不一致 상황은 8개의 평정치 중에서 4개가 Newcomb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결과였다. 따라서 Newcomb의 자료분석은 편파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평정치의 크기 면에서, Newcomb이 비균형된 상황이라고 分類하였던 -P/O의 不一致 상황은 평정치상으로 중간에 속하기 보다는 +P/O의 不一致 상황 보다도 더 불쾌한 것으로 나타났다. -P/O관계의 不一致 상황에 대한 Heider의 이론은 모든 평정치에서 이론에 부합되지 못했다. 즉, Heider가 균형된 상태라고 分類하였던 -P/O 관계의 태도불일치 상황은 두개의 불균형된 상황들 보다도 더 불쾌하거나 관계변화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愉快도와 關係變化意圖 평정치들에서는, 특히, -P/O의 不一致 상황에서 Heider나 Newcomb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P/O의 一致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상황은 모두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의 면에서 不均衡된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표 1〉 Newcomb (1968)의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연대들의 결과점  
 토 \* .

연 구 상 황	Jordan(1953) A (정조관계의 수)					Rodrigues (1967) A	Rodrigues (1966) A	Rodrigues (1967) B
	3	2	1	0	8개 패턴			
+P/O, 一 致	28.0	32.0	33.5	37.0	32.5	27.5	22.5	25.1
+P/O, 不 一 致	65.5	60.0	53.0	53.5	57.5	42.9	73.1	47.0
-P/O, 一 致	64.5	59.0	55.0	50.0	57.5 ※	65.6 ※	54.4	38.1
-P/O, 不 一 致	67.5 ※×	61.5 ※×	56.0 ※×	50.0 ×	58.5 ※×	57.0 ×	64.5 ×	40.7 ×

\* 평정치들이 클수록 더 불쾌하고 더 변화의도 점수가 큰 것임.

A 유쾌도 평정치

B 관계변화의도 평정치 합계

※ Newcomb(1968)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것

× Heider (1958)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것

(2) 그 뒤 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재분석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1970년대를 통해서 꾸준히 실시되어 왔다. 이들 연구중에서 현재의 분석에 관련된 연구들을 재검토하여 결과들을 재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를 조사해 보면, Newcomb이 인용한 연구들을 재분석한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특히, -P/O의 불일치 상황에서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이 지지받고 있지 못하였다.

Aderman(1972)의 연구에서는 평정치의 크기로만 보면 두 이론을 지지하는 방향의 결과이었으나 -P/O의 不 一 致 상황의 평정치는 非均衡된 상황이라기 보다는 不均衡된 상황들과 크게 유사하였다. Crockett(1974)의 두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에서도 POX의 조건에서는 -P/O의 不 一 致 상황들의 평정치는 두 이론을 모두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OQ의 상황은 Newcomb의 이론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평정치가 나타났다. 즉, 두 -P/O관계의 상황은

<표2> 1970년대 이후의 균형이론 검증에서 나온 결과들의 재분석 \*

연구 A / 상 황	Crockett(1974) C		Fuller Gutman Insko, Miller와 Songer Norman (1974)과 Knox 및 McGehee (1976)		洪大權 洪大權 (1980a)		洪大權 洪大權 (1980a) B													
	실험 1	실험 2	POX PCX POQ	POX PCX POQ	I	II	I	II												
+P/O, 一致	20.3	9.3	8.5	8.6	8.8	8.3	8.6	6.9	20.7	8.1	8.1	8.4	7.7	9.6	9.0	9.4	5.5	4.4	4.8	
+P/O, 不一致	53.0	4.6	2.4	3.5	3.8	5.4	3.2	24.9	4.2	52.4	4.9	4.4	4.7	4.3	6.2	4.1	4.1	10.5	10.8	10.0
-P/O, 一致	52.9	6.6	5.2	5.6	6.3	6.0	5.7	32.6	3.4	52.8	5.1	4.8	4.6	3.7	5.4	7.5	6.2	11.3	9.2	10.3
-P/O, 不一致	51.5	4.5	3.2	5.6	3.5	4.1	5.5	34.8	1.7	48.8	2.6	4.1	4.3	3.8	4.3	4.3	3.8	11.4	10.5	12.2

\* 洪大權(1980a) B를 제외한 자료는 모두 유쾌도 경험치임.

A 유쾌도 경험치들에서 연구자 옆에 S 표시가 없는 수치는 작을수록 더 불쾌한 것임.

B 세 관계 변화의도 점수 합계임. (수치가 클수록 변화의도가 더 큰 것임).

C P/CX에서 C는 입후보자이고 X는 정치체 이슈이었음.

※ Newcomb(1968)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것.

X Heider(1958)의 이론에 맞지 않는 것.

I P/O 관계 강도 변화 실험 결과임.

II P/X " "

III P/O 관계와 P/X관계 강도 변화의 조합 실험 결과임.

+P/O 관계의 균형과 불균형의 대략 중간으로 나타났다. POQ 상황 보다는 POX 상황이 Heider의 이론에 더 적합하다면, 결과는 역시 두 이론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Fuller(1974)의 연구에서는 -P/O의 不一致 상황에서 Heider의 이론이 지지받지 못하였으나 Newcomb의 이론은 다소 지지받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utman과 Knox(1972)의 결과에서는 -P/O 관계의 상황들은 모두 Newcomb의 이론을 지지치 않았으며 -P/O의 不一致 상황에서는 Heider의 이론도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결과는 洪大植(1979, 1980a, 1980b)의 5개 세트의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소 뚜렷하지는 않지만 Miller와 Norman(1976)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이 지지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Insko 등(1974)의 연구에서는 두 이론에 평정치의 크기만으로는 부합되는 결과를 얻었지만, -P/O 관계의 불일치 상황은 +P/O 관계의 균형과 불균형의 중간에 들어가기 보다는 두 불균형된 상황에 훨씬 더 가까웠다.

전체적으로 보면 -P/O 관계의 두 종류의 상황에는 총 40세트의 자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세트의 자료가 Newcomb의 이론과 반대되는 결과이었다. 한편, Heider의 이론에서는 균형된 상태로 취급되는 -P/O의 不一致 상황은 총 20세트의 자료 중에서 16세트의 자료가 +P/O의 불균형된 상황보다 더 불쾌하고, 더 관계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서 Heider의 이론을 거의 완전히 부정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Newcomb이 인용하였던 연구들과 197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P/O 관계의 상황이 Newcomb의 주장대로 非均衡된 상황이 아니라 +P/O 관계의 불균형된 상황과 꼭 마찬가지로 불균형된 상황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P/O 관계의 不一致 상황이 Heider의 이론대로 균형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두 불균형 상황과 꼭 마찬가지로, 아니 더욱 불균형 상태라는 것도 판명되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Newcomb의 三分法的인理論은 거의 완전히 否定되고 Heider의 二分法도 다시 내용상으로 否定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感情的反應과 行動的反應의 면에서 三元的社會關係에서는 +P/O의 一致 상황만이 균형된 상황이고 다른 세 상황은 불균형된 상황이라는 이론적 제안을 하

고져 한다. 여기에서의 이러한 제안은 연구결과들의 재분석에 기초한 事後 해석적인 뉴앙스를 띄고 있지만, 그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는 뒷 節에서 더욱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認知的 反應과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에 대한 균형이론의 비평적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1) Heider의 균형이론은 認知的 反應에서 상당히 지지받고 있고, (2)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에서는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認知的 反應에서도 三元的 關係의 각각에 대한 균형효과가 달리 작용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에서는 Heider와 Newcomb의 區分 보다도 필자의 區分이 더욱 資料들을 잘 설명하고 있음은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 2. 타인과 대상에 대한 好惡強度的 相對的 무게의 差異: 負的 優越現象 (negativity effect)의 作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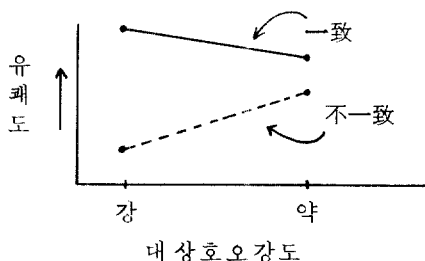
Heider의 이론에서는 三元的 關係들의 正的 및 負的 關係만을 수학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관계가 지닐 수 있는 力動的 差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그러나 三元的 關係에서 正·負關係가 性質상으로 다르다는 것이 시사되어 왔다 (Newcomb, 1953).

Newcomb(1953)은 균형과 불균형의 區分은 P/O 관계가 正的일 때에만 주장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負的인 P/O關係는 그自體 개인에 대해서 不便의 원천이 되고 타인과의 態度的 不一致에 의해서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印象形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正的情報보다는 負的情報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일정하게 보고 되고 있다(예: 조공호, 1976; Anderson, 1965; Feldman, 1966, Rokeach, 1968; Birnbaum, 1972 등). 또한 洪大植(1970)의 情報接觸 연구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에 대한 탐색은 없었으나 非支持的인 (즉, 負的인) 정보에 대한 회피가 발견되었다. 한편, Desoto와 Kuethe(1959)는 피험자들은 아무런 정보가 제시되지 않은 두 가상적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우연수준 이상으로 정적 關係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Zajonc와 Burnstein(1965a, 1965b)은 負的 關係들 보다 正的 關係들의 학습

에서 더 적은 착오를 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정적 편파 (positivity bias)는 아마 負的 關係나 情報의 특출성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반대로 正的 關係나 정보보다 負的인 關係나 정보에 대한 비중을 높히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된 正的 關係나 정보에 대한 負的 關係나 정보의 優勢現象 (즉, negativity effect)을 고려할 때, 三元的 關係에서 負的인 P/O, P/X나 O/X 관계들은 正的인 관계들보다 더 큰 지각차를 이룰 것이 예상된다. P/X나 O/X 관계의 正負에서 더 나아가 태도의 일치와 불일치도 지각자에게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될 수 있다. 즉, 正的인 상태라 할 수 있는 태도의 一致 상황보다 不一致 상황이 더 큰 무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正·負 關係의 성질차나 태도의 일치와 불일치 상황의 성질차를 고려한다면, Heider(1958)나 그의 이론의 수학적 확장이론들, 예컨대, Cartwright와 Harary (1956), Wiest (1965), Feather (1966, 1967),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a, 1971b) 등의 이론들에서 正·負 關係에 동일한 역동적 성질을 부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正·負 關係의 척도가 차원이나 간격이 다른 것으로 일단 가정한다면, 이들 부호의 가감이나 積에 의한 이론화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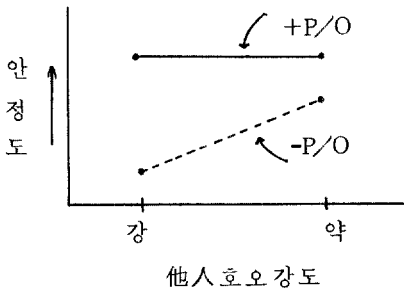
洪大植 (1980a)의 연구에서는 對象好惡強度의 効果에 대한 결과 중에서 愉快度 평정치에서 도 2와 같은 패턴을 얻었다. 도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같이 피험자에 대해서 正的 狀況인 一致의 상황에서는 대상호오강도에 따른 유쾌도 평정치의 차이가 적었으나, 負的 狀況인 不一致의 상황에서는 대상호오강도에 따른 차이가 훨씬 더 컸다.



<도 2> 대상에 대한 호오강도에 따른 태도의 일치상황과 불일치상황에 대한 유쾌도 평정치 (홍대식, 1980a에서 수정 발췌함)

즉, 不一致의 상황에서는 대상호오도가 약할 때보다 강할 때에 불일치에 의해서 더욱 不快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安定度와 期待度와 같은 종속변인들에서도 발견되었다. 또한 三元的 關係에서 O/X관계 변화의도의 측정치에서도 대상호오강도에 따른 일치와 불일치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 즉, O/X관계 변화의도 점수에서 일치의 상황보다 불일치의 상황이 대상호오강도가 강할수록 더욱 O/X관계를 변화시키려 하였다. 이와같은 패턴의 결과는 他人과 對象의 호오강도 조합에 대한 실험결과중에서 愉快度 평정치에서 얻어졌다.

洪大植(1980b)의 연구에서는 앞의 연구결과에서 他人에 대한 호오강도의 효과를 발견치 못한 것이 P/O관계의 好惡의 정도를 넓게 선택하지 못한 데에 기인되었다고 가정하고 他人에 대한 호오강도의 差異를 넓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愉快度 평정에서는 정적 및 부적관계의 강도증가에 따른 효과를 발견치 못했으나, 安定度 평정치에서는 負的 강도의 변화의 영향이 正的 강도의 변화보다 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도3 참조).



<도3> 他人에 대한 호오강도가 三元的 關係의 상황의 안정도에 대한 영향의 차이 (홍대식 1980b에서 수정 발췌함)

이상에서 제시된 三元的 關係의 상황들에 對한 正的 및 負的 關係의 강도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 差異에 대한 증거들은 正的 관계와 負的 關係의 性質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正·負 관계에 동일한 비중을 둔 관계의 積에 따른 균형과 불균형의 정의(예: Cartwright와 Harary 1956; Feather, 1966, 1967; Newcomb, 1968; Wellens와 Thistlethwaite, 1971a, 1971b; Wiest, 1965)는 不適切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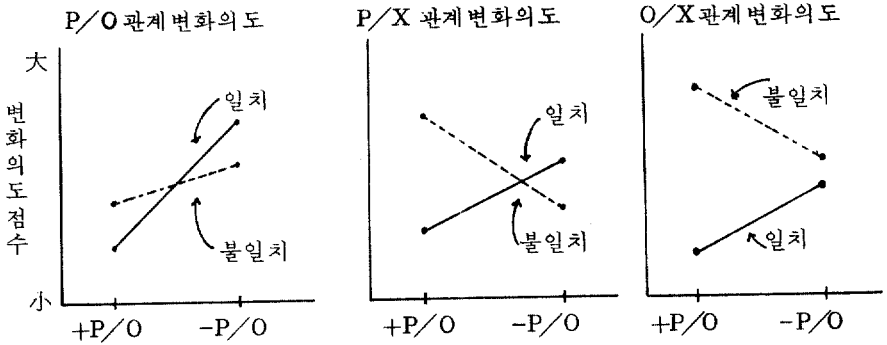


지금까지 고찰한 三元的 關係의 상황에 대한 正·負 관계의 성질 차이는 情報統合에 관한 印象形成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三元的 社會關係 知覺이나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서 正的 관계보다 負的 관계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正的 관계의 증가보다 負的 관계의 증가는 感情的 및 認知的 反應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理論的 提案을 하고자 한다.

### 3.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서의 세 종류의 관계의 性質差

앞에서 논의된 인지적 반응에 대한 균형원리의 작용에 있어서도 P/O, P/X 및 O/X 관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었다(도 1 참조). 즉, P/O 관계의 예측에서는 완전히 Heider의 이론을 지지하는 형태를 보였고, O/X 관계의 예측에서는 -P/O 상황에서 중성적인 예측점수를 보여서 Newcomb의 이론이 지지받는 경향을 보였으며, P/X 관계에 대한 효과는 어느 이론에도 부합되지 못했다. 이러한 세 관계에 대한 균형효과의 差異는 Heider나 Newcomb이 세 관계의 차이를 전혀 간과해 버린 점에 대해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만일 세 관계의 역동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앞에서의 正·負 부호의 영향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이론들에 결정적인 잘못된 점이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 관계의 성질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들을 연구결과들에 대한 재분석을 바탕으로 증명해 보고자 한다.

Rodrigues(1967)의 관계변화의도에 대한 평정치들을 균형효과의 면에서 재분석해 보면 도 4와 같다. 도에서 보이고 있는 바와같이 균형 효과는 세개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패턴으로 작용되었다. 패턴의 형태만을 고려한다면 P/X 관계에서 Heider의 균형이론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P/O 관계의 상황에서는 균형효과가 미약하였다. O/X 관계변화의도에서는 +P/O 관계의 상황들에서는 균형과 불균형의 구분이 뚜렷하였으나 -P/O 관계의 상황에서는 중간점으로 모두 수렴되었다. P/O 관계변화의도에서는 역시 균형효과의 패턴을 보였지만 P/O 관계의 호오에 따른 효과가 크게 작용되고 있었다. 이와 근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결과가 洪大植(1979)의 관계변화의도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효과가 세 관계에 대한



<도 4> 세 관계의 변화의도에 대한 균형효과의 패턴 (Rodrigues, 1967에서 수정발췌함)

변화의도에 미친 영향만 고려하더라도 세 관계의 성질에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 졌다.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들에는 방금 취급한 균형의 효과만이 작용되고 있지않고 여러 요인이 작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요인들은 세계의 관계의 각각의 正·負効果와 이들 사이의 相互作用效果로 구성되어 있는데 (Insko, Songer 및 McGarrey, 1974 참조) 이들 요소가운데에서도 P/O 관계의 호오 (positivity), P/O 관계호오와 O/X 관계호오의 一致度 (agreement) 및 이들 두 관계의 상호작용인 均衡 (balance)의 효과가 중점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고찰에서는 P/O, P/X 및 O/X 관계가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각 관계의 변화의도 측정치와 각 관계의 추리 측정치에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위에서 지적된 세 영향원이나 요인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만일 그러한 비교의 결과에서 P/O, P/X 및 O/X에 대한 세 요인의 영향이 동등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Heider 나 Newcomb의 이론이 다소 덜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관계에 대한 세 요인의 영향이 각기 다르다면, Heider 나 Newcomb의 이론은 상식적이거나 초보적이라는 비평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세 요인이 P/O, P/X 및 O/X 관계의 변화의도와 각 관계의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Rodrigues (1967)와 洪大植 (1979, 1980a)의 자료를 각 요소의 영향유무와 영향의 정도 ( $w^2$ )에 비추어 재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안에서 S는 영향이 유의하였던 것을 나타내고 N은 유의치 못하였던 것을 나타낸다.

P/O 관계에 관련된 자료에는 6 세트의 자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P/O 관계의 호오효과는 6 개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P/X에 관련된 7 세트의 자료에서는 4 세트의 자료에서 P/O 관계호오의 효과가 없었으며, O/X에 관련된 7개의 자료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P/O 관계호오의 영향은 세 관계에 대해서 각기 다르며, 특히 O/X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유의치 못하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태도의 일치도나 P/X 관계호오의 효과를 검토해 보면, P/O 관계에 대해서는 6 세트의 자료 가운데에서 5 세트의 자료에서 효과가 없었으며, P/X 관계에 대해서는 7 세트의 자료 중에서 4 세트의 자료에서 효과가 유의하였고, O/X 관계에 대해서는 7 세트의 자료 모두에서 효과가 유의하였고  $w^2$ 치도 모두 .13 이상이나 되었다. 따라서 태도의 일치도나 P/X 관계 호오의 효과는 P/O 관계에서는 거의 없고 O/X 관계에서는 매우 효과가 크며, P/X 관계에서는 이들의 중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관계의 각각에 대한 균형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P/O 관계에 대해서는 6 세트의 자료중에서 5 개에서 효과가 유의하였고, P/X 관계에 대해서는 7 세트의 자료중에서 3 개에서만 효과가 유의하였다. 한편, O/X 관계에 대해서는 7 세트의 자료 모두에서 유의한 균형효과가 있었고  $w^2$ 치 또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효과는 O/X 관계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P/O 관계에서 영향이 크고 P/X 관계에 대해서는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P/O, P/X 및 O/X 관계에는 각기 다른 쏘스의 영향이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세 관계에는 Heider나 Newcomb이 가정하고 있는 수학적인 正·負관계요인만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 요인이 서로 정도를 달리하여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이론들에서 관계의 正·부 부호의 積에 의한 균형의 정의는 너무 단순화된 것으로서, 對人關係의 균형에 대한 理論 수립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Heider는 三元的 關係의 지각에 있어서 지각자는 공정한 중립적

<표 3> 관계 변화의도 및 관계주리 평정치에 대한 세 영향원의 효과여부와 변량비 ( $w^2$ ) \*

연 구 영향원	Rodrigues (1967) A			洪 大 植 (1979) A			洪 大 植 (1980a) A			洪 大 植 (1980a) B				
	P/O	P/X	Q/X	P/O	X/Q	P/O	P/X	Q/X	P/O	P/X	Q/X	P/O	P/X	Q/X
P/O 관계 호오	S	N	N	S	N	S	N	N	S	N	S	N	S	N
	(.25)			(.40)	(.02)	(.2)			(.28)			(.21)		(.04)
태 도 의 일 치	N	N	S	S	N	S	S	N	S	N	S	S	N	S
	(.00)	(.01)	(.13)	(.02)	(.15)	(.01)	(.33)		(.23)			(.14단) P/X P/X P/X (호오) (호오) (호오)	(.30단) P/X P/X P/X (호오) (호오) (호오)	
균 형	N	N	S	S	N	S	S	N	S	S	N	S	S	N
	(.01)	(.05)	(.14)	(.01)	(.07)	(.04)	(.04)	(.00)	(.09)	(.19)	(.27)	(.02)	(.05)	

\* 괄호안의 수치는  $w^2$  치 임. N 효과가 없음

A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임. I 타인 호오강도 변화 실험

B 관계 예측에 관한 연구임. II 대상 호오강도 변화 실험

S 유의한 효과가 있음. III 타인파 대상 호오강도 조합 실험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를 내려다 보는 입장에서 본다고 은현중에 가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각하는 세 관계를 새로 다른 조망점에서 지각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對人關係에서 P/O, P/X 및 O/X만의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二者關係의 상황을 일상적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P/O 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인 것 같다. 두 사람은 일정한 장소나 시간간격에서 빈번하게 접촉한다. 따라서 P/O 관계는 지속적인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P/X 관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주 바뀔 것이다. 부부생활이나 교우관계를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직업, 흥미, 활동이 개재된다. 따라서 P/X 관계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지닌다. 한편, O/X 관계는 지각자에게서 가장 먼 관계이고 잘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타인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많다. 따라서 O/X 관계에 대해서는 애매성이 많은 특징이 있다.

三元的 社會關係에서의 이러한 성질의 차이는 對人關係의 균형이나 안정에 관한 이론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P/O, P/X 및 O/X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4.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서의 균형효과의 상대적 비중

우리는 이미 앞 節에서 세 관계에 대한 P/O 관계호오, 일치도 및 균형효과가 달리 작용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변인들이 三元的 社會關係의 전체 상황에 대한 반응에 작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들에서 균형이외의 요인들이 작용된다는 것은 균형이론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즉, 균형이론에서는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들에서 작용되는 요인으로서 균형의 요인만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요인들이 또한 작용된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는 균형이론의 포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된다.

지금까지의 균형이론검증을 위한 연구들에서는 여러 종속측정치에 대해서 균형의 요인 이외에 몇가지 요인이 더 작용된다는 결과들을

언고 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연구들 가운데에서 균형의 요인과 다른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연구를 재검토한 것이 표4이다. 표에서는 주로 유쾌도와 관계변화의도 평정치에 대한 P/O관계의 호오, 일치도 및 균형의 세 요인의 상대적 비중을 비교하여 보았다.

Gutman과 Knox(1972)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P/O 관계호오의 영향이 가장 크고 ( $w^2 = .33$ ), 그 다음이 일치도의 영향이 컸으며 균형효과는 단지 1%에 불과하였다. 즉, Heider의 균형원리에 터한 상황의 설명비율은 1%정도에 불과하고 압도적인 비율이 다른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또한 Gutman, Knox 및 Storm(1974)의 연구에서는 5~12세의 아동을 피험자로 삼아서 유쾌도를 평정시킨 결과 P/O관계호오의 영향이 압도적으로 컸고 ( $w^2 = .45$ ), 일치도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균형의 효과는 단지 1%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洪大植(1979, 1980a, 1980b)의 자료들에서는 8세트의 자료 가운데에서 5개의 자료에서 P/O관계호오의 영향이 가장 컸고, 3개의 자료에서는 일치도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균형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자료는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의 설명에서 균형이론의 위치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의 요인 이외의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의 開發의 필요성을 강력히 나타내 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感情的 및 行動的反應에서는 균형의 요인 이외에 적어도 P/O관계의 호오와 태도의 일치도 요인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들 세 요인이 어떻게 결합되어 삼원적 관계의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였으나, 다음 節에서 이에 대한 예비적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反應에 관한 綜合된 理論的 모형의 탐색

우리는 앞에서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반응에 작용되

〈표 4〉 유쾌도와 관제번화의도 평정에 대한 세 요인의 변량비 ( $w^2$ )

연 구 영향원	Guttman과 Knox (1972)	Guttman, Knox 및 Storn (1974)	洪大植 (1979)	洪大植 (1980b)	洪大植 (1980a)			洪大植*		
					I	II	III	I II III		
P/O 관제호오	.33	.45	.18	.16	.28	.01	.08	.11	.04	.14
일 치 도	.19	.00	.00	.07	.14	.54	.40	.06	.12	.11
균 형	.01	.01	.12	.08	.04	.02	.06	.05	.05	.03

\* 관제번화의도에 대한 자료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쾌도에 대한 자료임.

고 있는 요인이 Heider가 본래 가정하였던 균형 효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균형의 효과 이외에도 P/O 관계호오 효과와 두 사람 사이의 태도의 일치도의 효과가 마찬가지로 작용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균형효과를 압도하고 있다. 따라서,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전체의 反應에 대한 균형효과는 극히 미약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Heider의 이론만으로는 또는 그의 수정이론인 Newcomb의 이론만으로는 완전한 이론적 역할을 못할 것이 분명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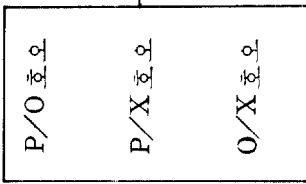
더우기, Heider나 Newcomb의 이론이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을 어떻게 차이있게 예언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현재로서 어떻게 해서 Heider의 이론이 인지적 반응의 설명에 유용한 이론이 되는지, 또는 Newcomb의 이론이 감정적 반응의 설명에 유용한 이론이 되는지는 전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좀더 예언력 있고 포괄적인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의 기본요소를 분석하고, 이들 요소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여러 반응(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의 측면에서 분석하여야만 된다. 이러한 통합된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게 될 때에만 지금까지의 균형이론들에서 설명치 못한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을 세우게 될 것이다.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 대한 반응에 관한 종합적 모형을 구성하여 보고저 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그것들이 심리적인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分析하고 이들 처리가 외현적 반응인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고려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화를 요약적으로 나타내면 도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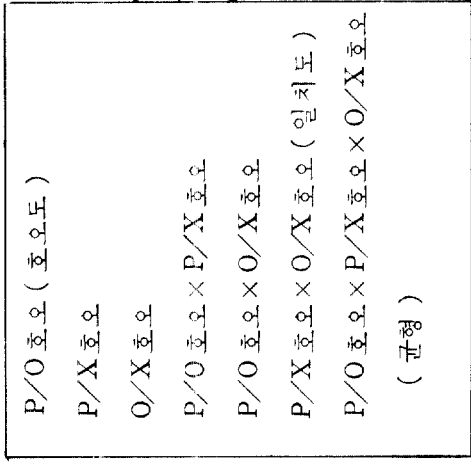
도에서 인간의 삼원적 사회관계 상황의 요소는 P/O, P/X 및 O/X관계의 호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 세 요소는 사회적 환경의 속성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요소의 관계는 하나 하나가 別個로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지각된다. 이러한 전체 사회적 상황의 지각에는 P/O, P/X 및 O/X 관계의 호오의 각각에 대한 지각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서, 세개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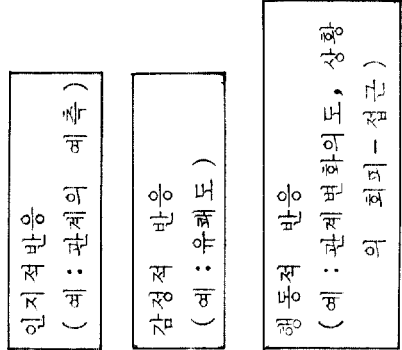
삼원적 사회적  
상황의 요소 (자극)



심리적 매개  
반응 (처리)



외현적  
반응



<도 5> 삼원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응에 관한 종합적 모형

차상호작용이 있다. 그것은 P/O 관계호오와 P/X 관계호오의 상호작용효과, P/O 관계호오와 O/X 관계호오의 상호작용효과 및 P/X 호오와 O/X 호오의 상호작용효과이다. 마지막으로 P/O 관계호오, P/X 관계호오 및 O/X 관계의 三次 相互作用의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균형이론의 검증연구들에서 주로 관심을 둔 것은 P/O 관계의 호오 (positivity) 효과, P/X 관계의 호오와 O/X 관계의 호오의 상호작용 (agreement) 효과 및 三次 相互作用 (balance) 효과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7가지의 효과에 비추어 본다면, 그와같은 개념화도 完全한 것이 못됨을 알게 된다. P/O 관계호오, 태도의 일치 및 균형의 세 효과는 결국 7가지 매개반응중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더우기, Heider의 균형, 즉, P/O, P/X 및 O/X 관계호오의 三次 相互作用 효과는, 7개의 매개반응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균형이론들에서 이것의 효과만으로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예언하려고 한 것은 무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社會的 상황에 대한 反應은 Rosenberg 나 Hovland (1960)의 개념화처럼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인지적 반응에는 관계의 예측이나 추리나 오지각과 같은 것이 포함될 것이고, 감정적 반응에는 상황에 대한 愉快度나 緊張 등이 포함되고 행동적 반응에는 각 관계의 변화의도, 상황으로 부터의 도피, 공격 행동 등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이들 세 종류의 반응은 先行의 7가지 매개반응의 영향을 받게 되고 7가지 매개반응의 작용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패턴의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즉, 세 종류의 외현적 반응의 결정에서는 앞의 7가지 매개반응의 무게 (weight)가 달리 작용될 것이다. 아마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무게의 적용패턴은 인지적 반응이 한 패턴이 되고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이 서로 유사한 한 패턴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에 비추어 지금까지 논의된 균형이론상의 문제나 새로운 이론적 제안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가가 문제일 것이다.

처음에 지적한 反應측정치에 따른 Heider와 Newcomb의 이론의 적합성 문제는 본 이론적 모형의 외현적 반응의 區別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연구결과들에서 인지적 반응 (관계의 예측)에서는 균형효과가 컸었고,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서는 균형효과 보다는 P/O 관계의 호오와 태도의 일치도 효과가 훨씬 더 컸었다. 이는

7개의 매개 반응이 외현적 反應의 성질에 따라 比重을 취한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즉, 인지적 반응에서는 매개반응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균형효과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서는 P/O 관계의 호오와 태도의 일치도 요인이 더 큰 比重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지적 반응에서도 P/O P/X 및 O/X 관계의 예측에 대한 균형효과의 패턴이 달랐던 것은 이들 관계의 예측에 균형의 요인의 비중이 각기 달리 있게 되고 또 다른 요인들이 각 관계의 예측에 비중을 달리해서 작용됨을 의미할 것이다.

두번째에 지적된 관계의 好와 惡의 성질차이와 負的 關係 강도의 증가가 正的 關係 강도의 증가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본 종합적 모형에서 고려해 놓아야 될 요소이다. 아마 매개반응에서 각각의 요소의 처리에서 正的인 관계보다 負的인 관계에서 더 比重을 두는 모형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본 이론적 고찰에서 세번째로 지적된 P/O, P/X 및 O/X 관계의 性質差는 종합적 모형에서 마지막의 외현적 反應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는데 P/O, P/X 및 O/X에 대한 여러 반응에서 앞에 있는 매개 반응의 요소들이 다른 比重으로 종합되어 최종반응을 구성하는 것으로 개념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상적인 대인적 상황에서 P/O 관계는 빈번하게 접촉되고, P/X 관계는 때에 따라 바뀌고, O/X 관계는 지각자로 부터 멀리 있고 知識이 부족한 관계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본 이론적 모형에서의 매개반응의 비중이 달리 작용될 것이 예상된다. 예컨대, P/O 관계의 예측이나 변화의도는 P/O 관계의 好惡의 영향을 크게 받고, P/X 관계의 예측이나 변화의도는 균형과 아울러 -P/O에서의 불확실성 요인이 특히 작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三元的 社會關係에서 세 종류의 관계의 특수성은 그것이 지니는 比重에 의해서 특징적으로 구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된 바 있는 세 부호의 積에 의해서 나타난, 균형의 効果의 相對的 무게도 본 이론적 모형에 비추어 설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균형이론을 검증 하여온 실험들은 주로 균형 효과에만 관심을 돌리고, 그 결과가 Heider 나 Newcomb의 이론에

일치되는지를 검토하여 왔다. 그러나 균형효과 이외의 요인들이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해서 작용되는 것이 이미 분명해진 현재의 시점에서 균형효과 이외의 요인을 이론적 검토에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Heider 와 Newcomb 등의 이론에서 결정적인 문제점은 正的關係나 負的關係에 心理的인 力動性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 마치 사회적 관계를 도형 지각에서처럼 아무런 정서적 및 행동적 개입이 없이 지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삼원적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는 이미 P/O 관계호오의 영향이 多大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관계가 지니는 역동적인 성질이 있음이 이미 판명된 것이다. 따라서 균형효과 이외에 본이론적 모형에서 지적된 세개의 각각의 관계 자체에서 나오는 영향을 인정하고 이론적 모형에 포괄시켜야 될 것이다.

이미 洪大植 (1980b)은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서는 균형효과 보다는 타인에 대한 好惡와 態度의 一致如否에 의해서 반응에 대한 예언이 더 잘 이루어 질수 있음을 지적하고, 態度의 一致度와 P/O 關係의 好惡에 대해서 Lewin의 場理論의인 유인가 (valence) 의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타인에 대한 正的 關係와 태도의 일치는 +의 유인가를 갖고 회피반응을 이룰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그러한 개념화에 비추어 8종류의 삼원관계의 상황을 표5와 같이 재해석하였다. 표에서 8종류의 상황을 P/O 關係의 好惡와 태도의 일치 如否의 두 요소로 분석한다면 표의 중간에 있는 심리가로 다시 축소시킬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심리적 성질을 부여하면 표의 마지막 칸에 있는 언어적 기술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적 기술을 單一 對象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正的 P/O 관계에서의 태도의 일치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상황은 완전히 불쾌하고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지금까지의 이 分野의 이론들에서 간과되어온 점이다. 이러한 각각의 +나 -관계의 성질차이가 어떻게 본 종합적 모형에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추구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대인관계의 균형에 관한 이론들에서 간과되어온 점들과, 그들 이론에서의

< 표 5 > 여덟 종류의 대인적 상황과 그것의 심리가

관계의 유형	心理價	언어적 기술*
+++	+ +	접근 - 접근
+- -	+ +	접근 - 접근
+ - +	+ -	접근 - 회피
++ -	+ -	접근 - 회피
- + +	- +	회피 - 접근
- - -	- +	회피 - 접근
- - +	- -	회피 - 회피
- + -	- -	회피 - 회피

\* 언어적 기술은 하나의 사회관계의 상황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으로 기술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들이 본 이론적 모형에 생산적으로 統合될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이론의 기본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는 애매한 채로 남아 있지만, 다소의 상세화를 통해서 보다 예언력 있고 통합적인 모형이 가능할 것 같다.

###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對人關係 상황의 안정성이나 균형을 다루어온 이론들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경험적 자료에 일치되어 왔다. 본 고찰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이 지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적 제안을 하고, 이들 제안을 하나의 통합된 모형으로 만들어 보려 했다.

첫째, 대인적 상황에 대한 反應의 면에서, 종래의 이론들은 인지적 반응에서 어느정도 지지받았으나 感情的 및 行動的 反應에서는 Heider 와 Newcomb 의 이론이 지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이론들은 인지적 반응에서 일부 지지받으며, +P/O의 一致된 상황을 제외한 모든 상황이 불균형된 상황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둘째, 關係의 正·負도 同一한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正的 관계나 의견의 一致 상황 보다

負的 관계나 不一致 상황이 더 큰 무게를 갖는다는 제안을 하였다.

세째로 삼원적 사회관계에 대한 세 관계의 성질차를 지적하였다. 이들 세 관계에는 균형효과가 달리 작용되며, 각각의 입장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三元的 社會關係의 상황에 대한 반응에는 균형요인 이외의 여러 요인, 예컨대, P/O關係의 호오, 態度的 일치도 등이 작용됨을 지적하였고, 상황에 대한 반응의 예언에는 균형요인 이외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위와같은 균형이론이 당면하고 있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이론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에서는 상황의 자극요인으로서 P/O, P/X 및 O/X 관계를 포함시키고 이들 요소가 심리적인 매개를 통해서 7가지의 요소로 처리되며, 이들 요소는 反應의 성질, 즉, 인지적,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에 따라 다른 比重을 갖게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합된 이론적 모형을 상세화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지적된 몇가지 제안이 생산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 參 考 文 獻

- 趙兢鎬. 刺戟의 극단성과 자아관여 수준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76, 2, 51-59.
- 洪大植. 認知的 不調和가 정보선택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70, 4, 128-138.
- 洪大植. 三元的 社會關係知覺에서의 他人과 對象의 具體性, 均衡 및 性的의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79, 2, 217-232.
- 洪大植. 他人과 對象의 호오강도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未發表博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1980a.
- 洪大植. 他人에 대한 好·惡의 강도가 三者關係의 知覺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80b, 1, 19-27.
- Abelson, R.P., & Rosenberg, M.J. Symbolic psycho-logic: A model of attitudinal cognition. *Behavioral Science*, 1958, 3, 1-13.
- Aderman, D. Effects of anticipating future interaction on the preference for balanc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9, 11, 214-219.

- Anderson, N.H.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 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2, 1-9.
- Birnbaum, M. Morality judgments: Tests of an averaging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72, 93, 35-42.
- Cartwright, D., & Harary, F. Structural balance: A generalization of Heider's theory. *Psychological Review*, 1956, 53, 277-293.
- Crockett, W.H. Balance, agreement, and subjective evaluation of the P-O-X tria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29, 102-110.
- Feather, N.T. Acceptance and rejection of arguments in relation to attitude strength, critical ability, and intolerance of inconsistenc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6, 127-136.
- Feather, N.T. A structural balanc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effect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67, Vol. 3, pp. 99-165.
- Feldman, S. Motivational aspects of attitudinal elements and their place in cognitive interaction. In Sheldon Feldman (Ed.), *Cognitive consistency*. Academic Press, 1966.
- Festinger, L.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75.
- Fuller, C.H. Comparisons of two experimental paradigms as tests of Heider's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30, 802-806.
- Gutman, G.M., & Knox, R.E.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in pleasantness, tension, and consistency ratings of hypothetical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2, 24, 351-357.
- Gutman, G.M., Knox, R.E., & Storm, T.F. Developmental study of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effects in the ratings of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29, 201-211.
- Heider, F. Attitude and cognitive organization. *Journal of Psychology*, 1946, 21, 107-112.

- Heider, F.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1958.
- Insko, C.A. *Theories of attitude change*. New York: Appleton-Century, 1967.
- Insko, C.A., & Schopler, J. Triadic consistency: A statement of Affective-cognitive-conative consistency. *Psychological Review*, 1967, 74, 361-376.
- Insko, C.A., Songer, E., & McGarvey, W.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he Jordan's paradigm: A defense of balance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4, 10, 53-83.
- Jordan, N. Behavioral forces that are a function of attitudes and cognitive organizations. *Human Relations*, 1953, 6, 273-278.
- Jordan, N. Cognitive balance as an aspect of Heider's cognitive psychology. In R.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68, pp. 169-178.
- Kiesler, C.A., Collins, B.E., & Miller, N. *Attitude change: A critical analysis of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9.
- Miller, C.E., & Norman, R.M.G. Balance, agreement and attraction in hypothetical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6, 12, 109-119.
- Murstein, B.I. Critique of models of dyadic attraction. In B.I. Murstein (Ed.), *Theories of attraction and lo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1971, pp. 1-30.
- Newcomb, T.M. An approach to the study of communicative acts. *Psychological Review*, 1953, 60, 393-404.
- Newcomb, T.M. Individual systems of orientation.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3, New York: McGraw-Hill, 1959, pp. 384-422.
- Newcomb, T.M. Interpersonal balance. In R.P. Abelson et al (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A sourcebook*. Chicago: Rand McNally and Company, 1968, pp. 28-51.
- Osgood, C.E., & Tannenbaum, P.H. The principle of congruity in the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55, 62, 42-55.
- Price, K.O., Harburg, E., & Newcomb, T.M. Psychological balance in situations of negative interperson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1966, 3, 265-270.
- Rodrigues, A. The psychologic of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6.
- Rodrigues, A. Effects of balance, positivity and agreement in triadic social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5, 472-476.
- Rosenberg, M.J., & Abelson R.P. An analysis of cognitive balancing. In C.I. Hovland, & M.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0, pp. 112-163.
- Rosenberg, M.J., & Hovland, C.I.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M.J. Rosenberg et al.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0.
- Rokeach, M.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 Bass, 1968.
- Wellens, A.R., & Thistlethwaite, D.L. An analysis of two quantitativ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Psychological Review*, 1971, 78, 141-150 (a).
- Wellens, A.R., & Thistlethwaite, D.L. Comparison of three theories of cognitive bal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20, 82-92 (b).
- Wiest, W.M. A quantitative extension of Heider's theory of cognitive balance applied to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self-esteem. *Psychological Monographs*, 1965, 79, No. 14 (Whole No. 607).
- Zajonc, R.B., & Burnstein, E. The learning of balanced and unbalanced social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1965, 33, 153-163 (a).
- Zajonc, R.B., & Burnstein, E. Structural balance, reciprocity and positivity as sources of cognitive bias. *Journal of Personality*, 1965, 33, 570-583 (b).

## ABSTRACT

###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THE INTERPERSONAL BALANCE

*Hong, Dae-Shik*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indicate the problems in the Heider's and Newcomb's theories of interpersonal balance, propose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those problems, and propose a new theoretical model of interpersonal balance. It was proposed that the responses to the interpersonal situations had to be classified as cognitive, affective and conative or behavioral responses. Secondly, it was indicated that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have different dynamic characteristics and weights in the interpersonal balance. Thirdly, it was proposed that perceiver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O, P/X and O/X relations and, therefore, the balance effect must be different on these relations. Lastly, it was indicated that balance effect had a weak power on the response to the interpersonal situations. A new theoretical model was proposed to correct the problems of balance theory and to provide a inclusive framework.